

#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

I. 일 시 : 2025. 12. 19.(금), 16:30 ~ 17:40

II. 장 소 : 군산시청 상황실(4층)

## III. 주요내용

- 2025년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 성과 공유
-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논의

## IV. 참석자 현황

□ 구성원

소 속 / 직 책	성함	참석 여부	소 속 / 직 책	성함	참석 여부
군장대학교/평생교육원장	손승건	○	청년포럼 / 상임이사	장정수	○
호원대학교/푸드창업학과 교수	김나형	×	생활문화동호회 / 감사	권상희	○
군산시민회의/분과위원장	이미아	○	월명동 / 통장협의회 회장	임광빈	○
군산4H연합회/사무국장	박거세	○	군산상공회의소 / 팀장	김승주	○
군산시의회 / 의원	김영란	○	전주대학교/관광경영학과 교수	심우석	×
전북일보 / 부장	이환규	○	군산대학교/미디어문화학부 교수	오원환	○
청년포럼 / 자문위원	김정훈	○	군산시 / 부시장	김영민	×
(주) 봉숙 / 대표	김한솔	×	군산시 / 문화관광국장	김봉곤	○
군장대학교/패션산업과 교수	이지현	×	군산시 / 관광진흥과장	김문숙	○
비 고					

## □ 개 회

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손승건위원장의 회의 개최 선포

## □ 회의내용(사회 : 축제지원계장)

### 1. 2025년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성과 보고(축제 총감독 장진만)

### 2.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

#### ○ 김정훈 위원

- 군산시간여행축제가 그간 쌓아온 정체성과 상징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함
  - 새로운 시도가 많았던 점은 긍정적이나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결성이 약해 흐름이 단절된 느낌을 받았으며, 당초 기획과 다른 형태로 운영된 프로그램이 다수 발생
  - 퍼레이드 안전관리 보완이 필요하며, 시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 필요
- ⇒ 총감독 : 기존축제의 정체성과 새로운 변화간의 균형이 충분하지 못했으며, 향후 보완 하겠음

#### ○ 임광빈 위원

- 기존에 비하여 주민참여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, 군산의 역사성 등이 축제 콘텐츠에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함
- ⇒ 총감독 : 대학로 일대 무대 설치로 인한 동선문제 및 퍼레이드 대기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참여인원 제한
- ⇒ 축제지원계장 : 주민 참여가 원활하지 못한 책임을 행정에서 인식하고 있으며, 향후 시민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정비하겠음
- 지역자산 활용 의견 또한 내년도 축제기획 시 검토하겠음

#### ○ 오원환 위원

- 정량적·정성적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였음
  -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 인정하나 소규모 공동체의 유기적 연결 구조 마련 필요
  - 단발성 참여가 아닌 축제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미리 조직화 해야함
- ⇒ 총감독 : 올해 과거 중심 콘텐츠에서 향후 현재 군산을 반영한 콘텐츠로의 변화 및 네트워크형 축제 구조화를 기획단계부터 반영하겠음

## ○ 이환규 위원

- 퍼레이드 지속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(관람객 충족 부족)
- 프로그램 예산 대비 시민 체감도 점검 필요하며, 체험형 콘텐츠나 어린이·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방안 마련 필요

⇒ 총감독 : 퍼레이드는 대동성·상징성 표현을 위한 킬러콘텐츠로 구성하였음

⇒ 축제지원계장 : 예산 대비 효과분석 필요성 공감하며, 운영방식 또는 콘텐츠 변경 검토하겠음

## ○ 김영란 위원

- 퍼레이드가 내빈위주로 구성되어 시민 관람에 제약이 있었음
- 군산의 역사·문화유산 비중 강화 필요 및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음악 등 콘텐츠 도입 제안

⇒ 총감독 : AI를 활용한 축제송 제작 등을 검토하겠음

## ○ 장정수 위원

- 지역 기획자 및 업체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하였으며, 감독-행정-지역주체 간 사전 소통체계 구축 필요
- 대동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를 통한 퍼레이드 준비 등 공통된 컨셉 필요
- 군산의 지역적 특성 충분히 파악하여 지역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실시 요청

⇒ 총감독 : 퍼레이드 중간 정지공연(플레시몹)을 배치하여 축제공간의 의미와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, 지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음

## ○ 김봉곤 위원(문화관광국장)

- 축제장 일부구간이 비어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, 퍼레이드 운영 조정 필요
- 기존 대표 프로그램+새로운 콘텐츠 추가 방식으로 연속성과 완성도를 이어왔으나, 총감독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일부 단절된 측면이 있으며, 기존 콘텐츠와 새로운 요소간의 병행·확장의 방향으로 개선하겠음
- 올해는 처음 총감독제를 도입하여 실험적 측면이 강하였으며, 주민·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콘텐츠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

## ○ 이환규 의원

- 타 시군대비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13만5천명의 관람객 유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, 가성비 측면의 장점을 살려 향후 더 나은 축제구성을 위한 논의 필요

## □ 폐 회

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손승건위원장의 회의 폐회 선포 (17시 40분 폐회)